

만남

2015 9월
통권 128호
(순교자 성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순교자 성월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허무와 인간(집회 18,8-14)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11~113	7
나눔 글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입니다	11
가정 교회	남편과 아내를 위한 십계명	14
찬 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15
공동체 소식		16
지방 공동체 소식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23
미사안내		24

《교황님의 9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젊은이들을 위한 기획

모든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교리교사

교리교사들이 자신이 선포하는 신앙을 삶으로 증언하도록 기도합니다.

2015년 9월 칼럼글

2015년의 순교자 성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루카 9,23-24)

자신이 믿는 것(敎)을 따라서 죽는(殉) 사람을 순교자(殉敎者)라고 합니다. 자신의 전 생애와 목숨을 바칠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한국 순교 성인들은 열두 살 어린 소년부터 일흔 아홉 살 할머니, 양반에서 상민, 학식이 높았던 지식인에서 낮 놓고 ‘ㄱ’ 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재산이 많았던 부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망라(網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녀노소(男女老少) 빈부귀천(貧富貴賤)을 뛰어넘어 온 생애와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상이나 이념 혹은 교리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마저도 하느님의 손길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그들은 행복합니다.(마태 5,11)

가치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불행합니다.

마땅히 생애와 목숨을 걸만한 곳이 없기에 자주 변절(變節)하며, 여기 저기 기웃거리며 인생을 탕진합니다. 신앙(信仰)마저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액세서리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뿌리 내릴 귀의처(歸依處) 없이 떠도는 부평초(浮萍草)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바람에도 무너져 내리고 작은 파도에도 이러 저리 흔들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번 순교자 성월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 허무와 인간(집회 18,8-14)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4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1절 노래하겠습니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 예수님, 당신 자비에 의탁하나이다. 의탁하고자 하는 맘을 일으켜 주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어느 분이 집회서 18장 8절부터 14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인간은 무엇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의 선함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인가?

인간의 수명은 기껏 백 년이지만 영면의 시간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바다의 물 한 방울과 모래 한 알처럼 인간의 수명은 영원의 날수 안에서 불과 몇 해일 뿐이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당신 자비를 쏟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고 아시며, 그런 까닭에 당신의 용서를 넘치도록 베푸신다.

인간의 자비는 제 이웃에게 미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게 미친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훈육하고 가르치시며 목자처럼 당신 양떼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와 당신의 규정을 열심히 따르는 이들에게 자비를 보이신다.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 인간은 무엇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의 선함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인가?

-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미친다.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자비롭게 대하고 있나요?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인간은 무엇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의 선함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인가?(집회18,8)

옛날 교리문답에 ‘사람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느냐?’ 라는 물음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령하는 것’ 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문제는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이해됩니다. 결국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보낸 후에 다음과 같은 통찰을 우리에게 소속감이라는 단어로 제시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소속되지<소속감> 못했다는 느낌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병은 유행병처럼 되었다. 우리는 소속되기를 애타게 열망하면서도 스스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

지금 우리는 가족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 관계의 확장 안에서 직장 and 다양한 모임을 통해 행복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와 의미는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곧 너와 나의 관계가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가장 큰 기준은 바로 '관계'의 풍요로움입니다. 최고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이 적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현대의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얘기한 것처럼 행복은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맺고 소속되어 있느냐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비는 제 이웃에게 미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미칩니다(집회18,13). 인간의 수명은 기껏 백 년이지만 영면의 시간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집회18,9). 인간의 시간은 한정되고 유한하기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관계의 원천인 하느님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소속됨이 바로 행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사는 삶의 도식을 만들어 갑시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4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교리111

성숙한 신앙(8)

신덕(神德)에 관한 의무(2) - 신앙고백

신덕에 관한 둘째 의무는 말이나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하느님의 영광이나 자신 또는 타인의 구원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분명한 태도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은 생각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그 신앙을 증거하여야 성립됩니다.

성서는 이 의무를 엄중하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마태 10,33)

로마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 10,10)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신자에게 “네가 그리스도교인이냐?” 라고 질문하면 신자는 분명하게 “그렇다” 고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묵이나 핑계나 위장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나의 명시적인 대답이 생활상의 불이익이나 직접적인 박해가 따를지라도 얼버무리는 대답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에서의 종교세 의무)

박해 때에는 신자는 숨거나 도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마태 10,23) 그러나 체포되어 심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런 때에 마음으로는 굳게 믿으면서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거짓말로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을 부인하는 것은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나 배교죄(背敎)가 됩니다.

신앙을 고백할 의무는 진실을 밝혀야할 경우와 남에게 악한 표양을 주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명시적인 신앙고백이 필요하지만 평소 생활에서는 묵시적인 신앙고백으로 충분합니다. 즉 신앙인답게 처신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신앙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에 다른 이들과 놀러갈 때에 나는 먼저 성당에 다녀와서 가겠다고 하는 말은 간접적인 신앙고백이고 회식 때에 성호를

긋고 음식을 드는 것도 신앙고백입니다. 물론 식사 전후에 성호를 긋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의무에는 신앙고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반신앙적인 기회나 행사를 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우상숭배는 물론이고 온갖 점복(占卜)술에 참여하거나 관상술에 의지하거나 무당, 판수, 점쟁이 노릇을 하는 것은 신앙을 직접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미신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반신앙적 행위입니다.

교리112

성숙한 신앙(9)

신덕(神德)에 관한 의무(3) - 성숙(成熟)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다.

바오로는 ‘언제까지 여러분은 어린아이로 있을 것입니까?’ 하고 물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유아적으로 신앙하는 것을 나무란다. 어른이 되어서도 젖먹이처럼 젖을 빨며 생활할 수 없다.

어른이 되면 어른답게 사고하고 신앙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한번 입에 물린 젖꼭지를 놓지 못하고 유아처럼 신앙할 때가 많다.

하느님이 삼위일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그것은 교리다.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이다.” 고 하며 마치 그 뜻을 물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 양 믿고 고백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건 맹신일 뿐이다.

하느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단순히 암기해야하는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바탕이다. 우리의 신앙고백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저 암기사항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생은 암기한 교리에 바탕을 둘 수 없다. 내 머리에 입력하고 저장하였다가 남의 물음에 출력시키는 차가운 교리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숙한 신앙인은 차가운 교리를 찰찰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 교리가 가리키는 진리를 향하여 산다. 성숙한 신앙의 바탕은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예수의 복음에 있다. 이 복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이 복음은 사물의 겉모양에 머물지 않고 그 속을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를 창조의 순간에서 바라보게 한다.

성숙한 신앙인은 겉모양에 나타난 지식과 허영과 인기에 머물지 않고, 이기심과 욕심을 떠나 사물의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그는 모든 인간에게서 사물에게서 하느님의 숨결을 들으며 우주적으로 산다.

교리113

성숙한 신앙(10)

신앙에 직결된 희망

신앙인이 제 아무리 견고한 망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현세에서는 순례자이고 항상 불확실한 인간 조건하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의 희망이 언제나 요지부동(搖之不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필리피 2,12)라고 하였습니다.

얼른 듣기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망덕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한 본성은 평소에 원칙대로 잘 하다가도 때로는 유혹의 저서 범죄 할 수도 있고 견고한 신앙과 희망으로 열심히 살다가도 고통과 시련을 만나서 흔들릴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 10,22; 24,13)하고 하며 항구한 믿음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희망에 항구하기 위하여 항구함의 은총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 중에서 두려움의 은사(Donum timoris - 경외)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종이 상전을 무서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염려하는 두려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면서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면 그의 망덕은 흔들리지 아니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지탱되는 망덕은 항구한 신덕을 보강하면서 더 완전한 애덕으로 사람을 자극하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망덕이 커질수록 애덕은 더 열렬해지는 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루터, 칸트, 안세니오파들은 인간이 하느님을 흠송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하느님의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흠송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런 주장은 하느님의 계시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위선적인 주장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믿고 흠송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 영생을 바라는 것이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바라라고 하시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지,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선행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하느님께 진복과 영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주장은 그리스도교 망덕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트렌토 공의회는 위의 주장을 단죄하였습니다. (6차 회의, 31항 참조)

그러므로 망덕의 필요성은 은총과 신덕의 필요성처럼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망덕은 신덕을 선행할 수 없는, 후속(後續)하는 덕입니다. 그러나 애덕에 대해서는 선행하는 덕입니다. 신덕과 망덕은 애덕에 선행하지만 덕행의 완전성에 있어서 애덕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신덕과 망덕은 현세에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애덕은 현세와 영생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신덕, 망덕, 애덕으로 구성된 대신덕은 그리스도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비안네 신부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입니다 - 한국의 순교자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이 프란치스코 교황님 주례로 거행되었다. 시복식을 교황이 직접 주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복(諡福)이란 가톨릭교회에서 성덕이나 순교로 인해 이름 높은 이에게 복자라는 칭호를 주어 특정 교구, 지역, 국가 혹은 수도단체 내에서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교황의 선언으로 정의된다. 성인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경 받기 때문에 공경의 지역적 범위에서 복자는 성인과 구분된다.

시복과 복자

한국교회 역사에서 시복식은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기해박해(1839년)와 병오박해(1846년) 순교자 79위의 시복식이 1925년 7월 5일, 병인박해(1866년) 순교자 24위의 시복식이 1968년 10월 6일에 각각 열렸다. 두 차례 모두 시복식 장소는 로마였다. 이들은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시성돼 한국교회는 103위 성인을 갖고 있다.

시복식 또는 시성식을 통해 순교자가 복자 또는 성인이 되는 것일까? 흔히 ‘시복식(시성식)을 통해 복자품(성인품)에 올랐다’거나, ‘복자반열(성인반열)에 올랐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본다. 이에 대해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총무 장신호 신부는 “순교자는 시복식이나 시성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느님 곁에서 복자와 성인으로 복락을 누리고 있으므로 시복식이나 시성식이 갖는 의미는 순교자들이 복자(성인)임을 전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03위 성인 시성 청원인을 지낸 수원교구 손골성지 전담 윤민구 신부도 “시복식(시성식)은 순교자들의 천상세계에서는 무의미한 일로 순교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복자(성인)반열’이라는 말은 과거 신분제적 사고가 깔려 있어 적절한 용어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민구 신부는 다른 한 편으로 “지상세계에서 본다면 많은 순교자 중에서 특히 신자들에게 모범과 도움이 되는 순교자를 선정해 복자(성인)로 선포한다는 의미에서는 시복식(시성식)을 통해 복자나 성인이 된다고 해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순교와 순교자

16일 광화문에서 시복된 124위 역시 모두 순교자다. 한국교회 역사상 3차례의 시복식은 모두 순교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교회를 ‘순교자의 땅’, 한국교회 신자를 ‘순교자의 후손’이라 칭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다.

그런 만큼 한국교회 신자들이 가장 자주 듣는 어휘 중 하나도 ‘순교’다. 순교란 무엇일까? 순교는 사전적으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침’, ‘신앙을 위해 죽음을 당하는 일’이라고 정의된다. 과거에는 순교라는 말보다 ‘치명’(致命)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인 적도 있다. 치명은 글자 그대로 ‘목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이라는 뜻으로 적극성과 능동성의 의미가 강조된 말이다. 결국 순교자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풀이된다.(「서울대교구 시복시성자료집」 57쪽)

사전적 정의 외에 가톨릭에서는 순교와 순교자를 규정하는 전통적인 기준이 있다. 순교자와 박해자 각각에게 질료적(質料的) 순교 사실과 형상적(形相的) 순교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점이다.

순교자 측에서 질료적 순교는 ‘실제로 죽는 것’,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며 형상적 순교는 ‘신앙을 위해 기꺼이 죽는 것’을 말한다. 박해자 측의 질료적 순교는 ‘죽인 행위 또는 죽음의 직접 동기가 된 가해 행위’를, 형상적 순교는 ‘신앙에 대한 증오’ 또는 이러한 증오가 주된 동기가 돼 죽게 한 것을 이른다. 한국교회가 현재 시복을 추진하는 대상 중에는 ‘증거자’로 최양업 신부가 있다. 증거자의 시복시성 절차는 순교자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최양업 신부를 ‘땀의 순교자’나 ‘백색 순교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순교자나 박해자에게 요구 되는 질료적, 형상적 순교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땀의 순교자’나 ‘백색 순교자’는 비유적, 문학적 의미로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교회법적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증거자의 경우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천주교회, 그 순교의 역사

16일 시복된 순교자 124위는 ‘한반도’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일정한 시기에 박해를 받아 순교했다는 이유로 시복이 ‘통합추진’됐다. 124위 순교자 중 단연 눈에 띄는 이는 윤지충(바오로)이다. 순교자의 시복이 통합추진 될 경우에는 시복 안건 제목에 대표순교자의 이름이 앞에 등장한다. 윤지충은 1791년 12월 8일 권상연(야고보)과 함께 전주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한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다.

한국교회 최초 순교자의 시복을 앞두고 신앙 선조들이 100년 가까이 이겨낸

순교 역사가 궁금해진다. 윤지충이 순교한 1791년의 신해박해를 시작으로 신유박해(1801년), 기해박해(1839년), 병오박해(1846년), 병인박해(1866년)라는 4대 박해에서 1만 명 내외의 순교자가 나왔다. 4대 박해 이외에도 정사박해(1797년), 을해박해(1815년), 정해박해(1827년) 등 크고 작은 박해는 박해시기 내내 상시적으로 지속됐다.

순교자 수에 대해서는 무명 순교자가 많은데다 문헌기록이 부족해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 연구자에 따라 크게 잡아도 1만 명이 넘지 않는다는 견해부터 3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신유박해는 천주교에 대해 관용적이던 정조가 1800년 6월 사망하고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형태로 시작됐다. 신유박해에서 정약종과 홍낙민, 최창현, 이승훈 등이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는 등 남인의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희생됐다. 유명한 황사영의 ‘백서’ 사건은 신유박해를 가열시키는 원인이 됐고 외국인 최초의 신부인 주문모 신부도 신유박해 때 순교했다.

기해박해를 거치며 앵베르 주교와 모방·샤스탕 신부, 최양업 신부의 부모인 최경환과 이성례, 교회의 회장 등 100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왔다. 조선교회는 다시 성직자 없는 교회가 됐고 교회 재건 운동에 큰 타격을 받았다. 기해박해는 천주교 신자들의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문이 거의 제기되지 않아 신유박해와는 달리 정치성을 띄지는 않았다.

병오박해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1846년 6월 순위도에서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병오박해는 김대건 신부 체포 후 중국에 있던 프랑스 함대가 조선에 출현해 기해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 3명이 순교한 사실에 대해 항의했다는 것이 이전 박해와는 다른 점이다. 프랑스 함대의 조선 원정은 20년 후 병인박해의 서막이었다.

1866년 2월 베르뇌 주교와 홍봉주의 체포로 공식적으로 시작된 병인박해는 8000명 이상이 순교한 최대의 박해이면서 마지막 박해였다. 병인박해를 끝으로 조선에서 서양 선교사들의 처형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병인박해는 1873년 12월 24일 고종이 친정(親政)을 하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면서 막을 내렸다. 병인박해 종식 후 20년이 지난 1894년이 돼서야 한국교회는 박해 이전의 교세인 신자 수 2만 명을 회복했다.

하느님의 종 124위는 기해박해 이전 순교자가 86위로 주로 초기 순교자가 중심을 이룬다.

남편을 위한 아내의 십계명

1. 아내는 자신의 가정을 꾸밀 줄 아는 재치와 근면성을 가져야 한다.
2. 음식 준비할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남편의 식성에 유의하라.
3. 혼자만 말하지 말라.
4. 남들 앞에서 남편의 결점을 늘어 놓거나 지나친 자랑도 하지 마라.
5. 남편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남편의 기분상태를 참작하라.
6. 남편에게는 한적한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음을 알아라.
7. 중요한 가정문제를 결정할 때는 남편의 뜻을 따르라.
8. 남편의 수입에 맞춰 절도있게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하라.
9. 아내는 모든 일에 참아라.
10. 아내는 하루에 두 번 이상 남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지적함으로써 남편에게 기쁨과 긍지를 주라.

아내를 위한 남편의 십계명

1. 결혼 전과 신혼 초의 자상함과 사랑을 계속 유지하라.
2.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라.
3. 아내의 외모에 항상 관심을 보여라.
4.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라.
5.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라.
6.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하라.
7. 가정불화의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양보하라.
8. 살림살이는 아내에게 일임하여 보람을 갖게 하라.
9. 아내의 취미를 존중하고, 그 취미를 키워 주라.
10. 하루에 두 번 이상 아내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일러 줌으로써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습관을 가져라.



284

내 모습

유상열

A E/G# F#m D

1. 내 모 습 어 디 가 아 름 다 와 주
2. 내 모 습 어 디 가 아 름 다 와 나

A F#m B⁹ E

님 나 를 사 랑 - 하 시 나 너 무
를 위 해 주 돌 아 가 셴 나 너 무

C#7 F#m Bm E C#m7

나 약 하 여 너 무 나 부 족 하 여 너 무 나 눈 물
나 죄 많 아 너 무 나 무 지 하 여 너 무 나 사 랑

F#m D Dm A

많 아 사 - 랑 하 시 죠 -
하 사 십 자 가 지 셴 네 -

❖ 9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베 레 나 (St. Verena)	김 윤 하	23일	리 나 (리노)	이 정 인
3일	그레고리오 (St. Gregory)	김 유 석 김 성 호			
7일	레 지 나 (St. Regina)	서 유 미			
9일	마 리 아 (St. Maria)	권 오 상 박 현 숙	28일	리 오 바 가 브 리 엘 (St. Gavriel)	정 단 비 최 서 로
13일	요한 크리소스토모	김 현 서	29일	가브리엘라 (St. Gavriela)	박 연 심 이 현 후
16일	대건 안드레아	강 경 목			
17일	로 베 르 토 (St. Robert)	강 일 남 이 도 선		미 카 엘 (St. Michael)	김 재 환 김 청 운 김 준 희 김 찬 회 최 희 로
18일	리 카 르 다 소 피 아	이 보 영 서 지 혜		미 카 엘 라 (St. Michaela)	김 혜 정 김 민 현 민 경 화
21일	(구약) 요 나 (Jonas)	박 요 나		라 파 엘 (St. Raphael)	김 영 호 이 종 하
22일	(사제) 요 나 (St. Jonas)	안 태 웅	30일	소 피 아	심 재 은

❖ 9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세라피아	박경자(B)	21일	마태오	김명수(H)
			22일	디 나	김희근(H)
			26일	빈첸시오	추이슬(B)
6일	배 아 타	신의경(H)	29일	가브리엘라 (St. Gavriela)	신윤경(O)
12일	마 리 아 (St. Maria)	양봉자(B) 유복희(O)		미 카 엘 (St. Michael)	이종열(B) 김일환(H) 정근욱(H)
				미카엘라	조진영(H)
			30일	예로니모 (제 롬)	현 우(H)

❖ 9월 미사 전례 봉사자 ❖

9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6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영원(베드로) 이정옥(크리스티나)	이정수(토마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요셉 마리아
13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이수용(필립보) 김순임(안나)	김진호(프란치스코) 곽케빈(요셉)	1구역
20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박귀동(토마)	김잔디(아네스) 윤예진(모니카)	주일학교 복사단	2구역
27일 (한가위)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진호(프란치스코) 곽케빈(요셉) 이정수(토마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공동체

❖ 9월 성가번호

9월	입 당	봉 헌	마 침
6일	48	211	283
13일	19	210	286
20일	287	218	285
27일	57	510	416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8월 2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3일
계(€)	237.25	203.32	197.20	232.64

❖ 자진헌납금 ❖

2015년 7월 27일 - 8월 23일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이중지, 박성아, 김형웅, 이기열, 정정숙, 배성우, 윤예진, 이석우, 진윤희, 손대조,
이경규, 현영애, 이종화, 이현묵, 이정수, 이영희, 이공종, 육종인, 강신행, 이수웅,
심동근, 우동천, 김민수, 이정은, 한선지

구좌입금 :

강일남, 김동수, 김대현, 김진호, 김치수, 허두욱, 서유미, 허길조, 곽케빈, 최현봉,
이성원, 방조 영자, 최화영, 최성자, 홍경영, 허채열, 남궁춘배, 백정선, 오옥수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9월 2일(수)부터 5일까지 유럽 성령 묵상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브레멘 - 김영자 (아나스타시아), 조영실 (마리세실)
 하노버 - 목진만 (이나시오), 이혜경 (젼마), 박선자 (헬레나)
 함부르크 - 방조영자 (젼마), 김순님 (안나), 이정인 (리나) 8명이 참석합니다.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본당 신부님 출장 관계로 **3일(목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2. 9월 12일(토)은 Kirche Tag입니다. 만남 성당 앞에서 음식 판매가 있습니다.

3. 9월 27일은 한가위입니다. **15:00에 만남성당 밑 강당에서 미사가 위령미사가 봉헌 되어집니다.** 위령미사 접수는 전례 부장님을 통해서 미리 해 주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날 가톨릭 다이제스트에서 책자 소개를 합니다.

4. 예비자 김보경 자매님, 김경미 자매님, 김 건 형제님, 노하빈 자매님, 이희자 자매님께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5. 첫 영성체 준비를 김 산, 박동윤 스테파노, 김현서 요한 크리스토토모. 우리 아들, 딸 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이선주(로사)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브레멘 공동체에 김혜림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쁜 신앙생활 빕니다.
3. 9월 2일부터 5일까지 유럽 성령쇄신 묵상회에 브레멘 공동체에서는
조영실 마리 쎄실, 김영숙 아나스타시아 두 자매님이 참석합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2. 8월 미사는 야외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15일 대축일 관계로 22일(토)
에 봉헌하였습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8월 미사는 여름 휴가기간 성당사정으로 없었습니다. 소속 독일 본당
과 여행지에서 모든 성사생활에 충실하였습니다.
2. 소공동체 기도모임은 8월 29일(토) 17:00시에 설 헬레나 자매님 가정
에서 나눔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한 말 조 마리안나	040/ 5069 7342 0157 7021 0466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장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허 길 조 안드레아	040/ 555 3441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8903264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김 수 희 모니카		04106-72958
		3구역	구역장	김 형 웅 야고보		0157 84305419
			총 무	김 정 자 켄 마		6310912
		4구역	구역장	정 명 옥 살로메		6448623
			총 무	이 순 자 마리아		41091742

❖ 2015년 9월 ❖

9 월 중 행 사 예 정 표

(순 교 자 성월)

일	요일	전례일	기관·단체 행사	비고
1	화			
2	수		유럽 성령 묵상회 -5일	주임 신부님 출장
3	목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꾸리아	평일 미사 없음
4	금		1구역 소공동체	
5	토			브레멘 공동체
6	일	연중 제23주일	사목협의회	
7	월			
8	화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백로		
9	수			
10	목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11	금		2구역 소공동체	
12	토		Kirche Tag(음식 바자)	오스나브뤽 공동체
13	일	연중 제24주일	청년 소공동체	
14	월	성 십자가 현양 축일		
15	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16	수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17	목			
18	금		3구역 소공동체	
19	토			하노버 공동체
20	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1	월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22	화	연중 제25주간 화요일		
23	수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추분		
24	목		연령회	
25	금		4구역 소공동체	
26	토			
27	일	한가위(연중 제26주일)	추석 위령미사 및 행사	15:00 강당
28	월			
29	화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30	수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한 말 조 마리아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본당신부님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57 5436 0230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